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9, 사도행전 5-6:7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9회기, 사도행전 5장부터 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호수아 7장, 어쩌면 레위기 10장과 같이 주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막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국은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국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운동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포된 후 천사에 의해 풀려났고, 그 후 성전에서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챕터가 끝날 무렵 그들은 바리새파 온건파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나는 돌아가서 이들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유대인 자료에서는 사탄을 특히 고발자, 유혹자,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들은 구약성서에서 나왔지만 특히 초기 유대 문학에서 사탄의 세 가지 역할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범하는 자를 치신다는 내용이 레위기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법궤가 오랫동안 이 집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웃사입니다. 그는 방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운반하는 장대에 싣는 방식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궤가 흔들리지 않자 손을 뺀어 그것을 만지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avid는 매우 화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묻혔습니다. 뭐, 사람을 바로 물어버리는 것이 관례였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자원을 기부했다면, 교회는 매장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장례협회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누군가가 그들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룹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 정책과 같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또한 당신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회가 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감쌌다고 합니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보호하여 사람들이 얼굴 등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4절과 같이 청년들이 시신을 메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례를 치르는 가족 역할을 합니다.

삽비라가 남편을 찾으러 옵니다. 당연히 고대 아테네의 여성과는 달리 유대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시장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고대의 다른 가치관과는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에 의해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처럼 여성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잡아갔다고 하는데, 이는 남자만 잡아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열심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믿었던 사도행전의 다른 많은 부분에 나오는 여성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Luke는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남녀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여러분이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심판의 기적은 대개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근처에 있고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처음 두 무리의 50명 이후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립니다. 다음 50명의 부대장이 와서 엘리야에게 제발 나와 내 백성에게 불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처형은 공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에서 그런 식으로 기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그런 식으로 기능했습니다.

5:13에서 다른 사람들은 합류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개종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알려진 이교의 마술적 개념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유대인의 관념이었지만 참된 관념이건 아니건 하나님은 베드로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하시고 만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체포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가 이제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12명의 무리 전체가 그들 앞에 심문을 받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있었고, 이제 이 사도적 운동, 이 기독교 운동,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지만 이제는 말 뒤에 행동을 취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중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덜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폭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잘못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의 동기, 즉 질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불평하며 그것이 참신한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참신한 특징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고대 역사서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동기는 정치사, 고대 정치사 곳곳에서 언급된다. 사실 그것은 아마도 현실에서 매우 흔한 동기였을 것이다. 고대 도시 지중해 사회, 즉 남성 사회는 명예를 위한 경쟁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명예는 제한된 수량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동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싶은 정치적 적수도 있었습니다. 글썬요, 분명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기를 얻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질투의 요소는 그런 의미에서 추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사두개인들을 종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요세푸스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에게도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저작 중 하나에서는 혁명 운동의 일부였던 네 번째 그룹인 열심당에도 이 단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나사렛파가 종파라고 불리는 경우, 사두개인이나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종파라고 부릅니다. 요세푸스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 철학 학교에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고 학파, 특정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재판까지 구금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감옥이 항상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감옥에서는 한 방에 많은 사람들이 뺨뺨이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항상 화장실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지 않고 매우 건강했습니다. 이 감옥은 지중해 세계의 다른 감옥들보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전까지 구금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벌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었고 때로는 형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평론가들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형벌로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지만 재판까지 구금되었습니다. 다음 절에서 천사가 그들을 내보내줍니다. 자, 이것은 고대 청중들이 매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기적적인 탈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Euripides)로 돌아가서, 에우리피데스(Euripides)는 펜테우스(Pentheus) 왕이 디오니소스 추종자들의 이 새로운 운동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광란에 빠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에나드(maenad)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가베(Agave)도 이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들을 내보내었다. 그리고 결국 펜테우스 왕의 복수는 신에게 대항하는 사악한 왕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산산조각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신에 사로잡힌 다른 광란의 마이나드들은 그의 떨리는 살을 먹어치운다. 글썄, 그것은 단지 그리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르테파니스 에 관한 기독교 이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 읽은 더 이른 출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오래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 안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중, 특히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누가의 청중은 이러한 이야기 중 일부에 익숙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유대인의 형태로 전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당국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즉시 성전 뜰로 가서 설교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성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해가 지면 문을 닫았다가 자정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에만 돌아왔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당일로 예정돼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에, 또는 청문회에 회부되기 전에 풀려나고 아침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면 즉시 성전 뜰에서 설교하도록 파견됩니다. 헌금. 그리고 그들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꽤 대담합니다.

당신은 방금 설교하다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서 좀 더 설교해 보세요. 그들은 권위자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 권세자들이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서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든, 아니면 결국 조만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든 여전히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522년에서 526년 사이에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당국 앞에서 심문을 받기 위해 경비병들이 파견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레위인 경비병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8절에서 당국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그 혐의는 지방 귀족들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화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예수의 추종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매우 화해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러한 상황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이 권위자들이 그릇된 일을 하고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또한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고, 그것은 당국을 별로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국은 소크라테스를 처형했고 그 이후 매 세대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영웅으로, 당국을 나쁜 사람으로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국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사도단의 대변인인 베드로는 아마도 그가 선지자들의 말을 반영하고 당국에도 도전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당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권위이시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께 응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3~42절입니다.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그리스어로 수네드 리온(sunedrion) 이고, 원로원과 같은 시의회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소규모 지방 의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시의회는 평균 7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귀족의 주요 인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랍비 소식통은 71명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아마도 단지 평균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바리새파 온건파가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대답하는 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계속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명예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바리새인의 설득을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자비를 베풀 때 더 많은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요 제사장 가족들이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출처에서는 이에 대해 불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몽둥이를 사용하고 사람을 때리는 등의 일을 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가말리엘 1세는 온화한 바리새인 교사 힐렐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개의 주요 학교가 있었는데, 힐렐 학교와 삼마이 학교였습니다.

힐렐과 삼마이는 예수님의 공생활 당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아리마대 요셉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역시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내에서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만큼 큰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때 살로메 알렉산드라 치하에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은 몇 세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대왕과 사이가 좋았지만 항상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두 바리새인 교사의 제자들 중 50명이 성전에서 그의 검독수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가말리엘은 확실히 산헤드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요세푸스를 통해 그의 아들인 가말리엘의 아들 시몬이 산헤드린의 저명한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가말리엘 2세는 랍비 전통의 초기 단계에서 당시 초기 랍비 운동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은 저명한 사람, 아마도 모든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아들 시몬의 역할로 본다면 그도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그의 경건함과 학식을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권력이 거의 없었지만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관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법이 그들이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은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축제 기간에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어차피 여기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인 린칭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전 산에 있는 성 안토니아 요새에 로마 소속 군인 집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이 모이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토라를 지키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토라를 지키고 있다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취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교회 회원인 일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교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의 다른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초,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대제사장에 의해 처형될 당시, 율법에 꼼꼼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요세푸스는 말하는데, 이는 사실상 그가 항상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 매우 세심한 사람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행한 일에 대해 새로운 로마 총독이 왔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대제사장이 폐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더 잘 지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대중주의 종파, 바리새인,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관대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매우 경건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특히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지도 아래서보다 야고보의 지도 아래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옹호하며 그들을 처형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로 이해하지만 그를 혁명가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고대사 18장에서 예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요세푸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혁명가인 테우두스와 갈릴리 사람 유다를 비교합니다. 이제 요세푸스로부터 재구성할 수 있는 한, 테우두스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주도했거나 테우두스가 44년경에 메시아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말리엘의 연설 후 약 1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세푸스가 틀렸을 가능성이다. 하나는 루크가 틀렸을 가능성이다.

요세푸스는 누가보다 혁명가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고 요세푸스는 누가보다 유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곳이 누가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가장 보수적인 학자들이 아니다. 가장 보수적인 학자들은 아마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테우두스(Theudus) 라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그것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말합니다. 논쟁의 문제는 그것이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udus는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Thaddeus의 약어 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제 유다는 일반적인 이름, 즉 다른 사람이었지만 테우도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고대 역사가로서 그 시대에 알려진 가장 저명한 혁명 지도자들의 이름을 간단히 기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당시 사도들은 그곳에 없었지만 의심할 바 없이 그 소식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난 것을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므로 가말리엘이 그들을 대신하여 무슨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말을 알았을 증인이 한 명 있는데, 그는 누가에게 아주 좋은 자료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 말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더라도 이것이 단지 혁명가였다기보다는 이 땅 밖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혁명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루크는 이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저명한 혁명가를 지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고대 역사가들이 연설을 쓰는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장르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최신 장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Theudus가 흔한 이름인 것처럼 증거를 만들려고 너무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음, 루크는 훌륭한 역사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타키투스의 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타키투스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세푸스는 테우두스가 마술사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이로운 일꾼에게 부여한 매우 부정적인

칭호였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사용되는 것과 같은 용어이지만, 동방박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테우두스가 요단강을 떠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법사에게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호수아처럼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우두스 당시 총독이었던 테우두스의 총독은 테우두스를 체포 하고 그의 목을 참수했다. 갈릴리 사람 유다(37절)

갈릴리 사람 유다는 6년째 세금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은 나중에 66년 이후에 로마에 대항한 반란에 가담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 유다가 6년째 세금 반란을 주도하여 유대 총독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세포리스가 나사렛에서 불과 4마일 도보 거리에 있는 세포리스를 파괴하는 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세포리스를 재건하던 중 세포리스 주변에는 목수들의 수요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는 목수일 것이다.

그는 글쎄, 유다는 사닥이라는 바리새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기득권층에 반기를 들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귀족 제사장들의 통제를 받는 산헤드린은 로마 통치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킨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 사이의 인기였습니다. 그것은 백성과 로마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백성을 학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로마 통치가 제공한 안정으로부터 경제적로나 명예 등의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적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두 혁명가에 비유합니다.

그는 예수를 혁명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제기한 것입니다. 38절과 39절. 가말리엘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집안은 히브리어 성경뿐 아니라 그리스어 교육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스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글쎄요, 사도들은 아마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신과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테오마코스. 이제 그것은 에우리피데스와 에우리피데스를 뒤따르는 이후의 작품에서 펜테우스가 신과 디오니소스에 맞서 싸우는 왕으로서 행했던 일에 사용된 정확한 언어였습니다.

펜테오가 한 일에 사용된 또 다른 표현은 채찍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께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가말리엘의 제자인 바울과 대결하신 방식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정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가능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테우도스와 유다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리 소멸된 것처럼 그 움직임도 결국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제사장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제사장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매를 맞는데 유대 율법에 따라 매를 맞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토라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 39번의 채찍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지칠 때까지 당신을 채찍질하는 로마의 구타와는 다릅니다. 때로는 뼈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타를 당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구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뻐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내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한 번 이상 내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혀서 머리카락이 뽑혀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머리카락이 부족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성장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때에도 계속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또 한번은 주님께서 나의 아드레날린을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무엇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땅에 부딪혀 머리카락이 뽑혀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또 한번은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녀온 후 눈이 멍들고 얼굴에 피가 조금 흘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한동안은 아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학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선한 일로 고난을 받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장될 것이다. 글썄요, 그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 뛰놀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바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이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Paul이 특정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특정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실제로 의미론적 힘에서 겹치지만 이것이 두 용어 사이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일부 집단에서는 설교를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다면 흥분해서 소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서클에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말하는 내용에 흥분할 때 때로는 사도행전 2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둘 사이의 성경적 구별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주로 교훈과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의미는 서로 겹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파루시아를 갖는다는 생각은 담대함, 담대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회중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코 나를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교회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썄요, 박해와는 별개로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 자체 내에서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일곱 명의 자선 분배자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소수자들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대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수 집단은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숫자 때문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에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폐쇄하지 말고 경청하십시오. 자, 이 경우에는 그들은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과부들은 가장 무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고대에 가장 무력한 집단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무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남편의 친척들이 과부의 집을 빼앗고 과부와 자녀들을 내쫓는 사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러한 사회 중 하나에 속해 설교하고 있다면, 당신의 회중 구성원들이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거나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반대하는 설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러나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시니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거듭 반복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때때로 남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도망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남성적인 구체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때로는 여성, 특히 힘없는 여성, 특히 엄마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힘없는 나이든 여성의 말을 듣기도 했다. 우리는 때때로 구약에서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그 일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하여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아니면 요압 자신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성을 공격하는 대신 그 성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과부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계속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는 듣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부들은 문을 닫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항상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문제는 그들이 그 자체로 과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과부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 배급 프로그램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그들이 문화적으로 교회 내 소수민족의 과부라는 점이다. 그들은 헬레니스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가운데 있는 소수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수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교회의 미래를 향한 다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 말은, 이 시점에서는 교회에 이방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들보다 그리스 세계에 문화적으로 더 친숙한 이 소수 집단은 미래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상황이 전개된 방식을 돌이켜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수자인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통찰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세대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주고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들은 과부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과부들을 돌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과부에게는 가족이 없으면 다른 지원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계속하기 전에 과부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는 과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성전의 선지자인 시몬이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과부로 지내온 여예언자 안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부르짖는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를 학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과부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 직후에 이 두 렘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보다 더 많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부들을 돌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가 과부를 돌보는 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회 내에서 무력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항상 과부인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지배적인 문화의 일부이거나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겪고 있는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별한 문화적 역동성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헬레니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문화를 어느 정도 흡수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문구는 마카베오 문학과 다른 곳에서 그리스 문화를 흡수한 유대인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서는 아마도 외국인 유대인 대 유대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좋아했던 요셉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그렇게 큰 외국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유대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80%가 유대와 갈릴리 외부에 살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동쪽의 파르티아에 살았거나 로마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레츠에 매장되는 것이 덕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해 후기 랍비들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후원한 것이 이스라엘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지에 묻히는 것은 덕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너무나 많은 외국 유대인들이 충분히 돈을 모은 후에 그곳으로 이주하여 마지막 날을 그곳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죽자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외국인 과부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내보다 먼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정착한 외국인 유대인의 수에 비해 외국인 과부의 비율이 현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대인 공동체가 반드시 그들의 과부들을 모두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으로까지 퍼진 문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사회 문제와 사회 가치관의 문제가 결코 교회 안으로 파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성지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후기 전통이 있는데, 부활 이후 에스겔 37장이 성지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묻히면 그들의 시체가 지하로 굴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 성지로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이것이 시체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성지에 묻혔는지 확인하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는 6장과 9절에서처럼 그곳에 외국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곧 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과부들을 돌볼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은 불평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고대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던 단속 대신 실제로 전체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불쾌한 소수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7개를 선택합니다.

12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7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 명의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대개 대부분의 마을에는 일을 판단하는 일곱 명의 장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7은 리더 그룹에게 적합한 숫자였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모세 아래에 열두 장로와 칠십 인 또는 칠십이 장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8장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장인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행정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위임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시도하지만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서 나는 일이 제대로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개 그것에 매우 집중합니다. 출판된 후에 편집자들이 내가 말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말한 내용 중 일부가 편집자들에게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일이 너무 많으면 그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행정 업무 중 일부를 위임했지만 누구에게나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존경받는 자, 곧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서 선례를 제공하며, 이를 수행할 적절한 사람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이유는 모세가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처럼 사도들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평판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 중 하나는 대중의 신뢰도에 중요했습니다. 이 시기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중해 세계 전체에 걸쳐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자격 중 하나였습니다. 평판이 좋아야 했어요.

또한 성실성 등도 갖춰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과 7절에도 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그들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분명히 그리스의 공무원 선출 관행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관습은 다른 곳으로도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Essenes는 또한 공무원을 선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에세네파에 관해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과 13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지도자는 그 선택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에는 평판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은 확실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는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후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글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선택 되었습니까?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또 있었다. 그들은 교회가 다양성을 확인하고, 교회 내의 소수 집단을 확인하는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소수자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내의 긴장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불쾌한 소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일곱 개의 이름을 보면 일곱 개 모두 그리스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스 이름과 비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로마에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40% 미만만이 자신의 이름에 그리스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 12명을 보면 한두 명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빌립은 확실히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두 명 중 한두 명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식량 배급 프로그램은 헬레니즘인들과 매우 분명하고 눈에 띄는 헬레니즘인들에게 넘겨졌는데, 그들 모두는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개종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방인이었으나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안디옥에 개종자가 많았다고 알려 줍니다. 어쩌면 그는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을지 모르며,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안디옥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기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글쎄, 창세기 48:14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안수는 축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자들이 그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7장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결과 신명기 34장 9절은 그가 지혜의 영, 즉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언어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전통이 되었습니다. 후기 랍비들은 아마도 이미 이 시기에 이미 입증되었지만 나중에 입증된 바에 따르면 안수식은 죄를 옮기기 위해 희생 제물에 손을 얹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방식이었습니다. 무거운 방법으로 그들을 사역에 임명하거나 성별하여 사역을 위해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따로 놓는 것은 실제로 그 영이 부어지는 것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그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위해 디모데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영적인 은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맥상 이것은 특히 가르치는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 놓고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수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즉 사도들이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기도와 말씀 사역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고, 편견을 갖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오히려 배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누가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지, 누가 진짜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7절에는 요약된 진술이 있습니다.

요약문은 종종 고대 작품의 일부를 결론지었고, 우리는 많은 제사장들이 이 시점에서 신앙에 순종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세요, 상류층의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에 속했지만, 하류의 제사장들이 반드시 사두개파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스가랴 같은 사람들도 아마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 중 일부가 실제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물을 통제하는 성직자 귀족들은 실제로 가난한 성직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로부터 나중에 그들이 가난한 제사장들을 너무 많이 착취하여 많은 제사장들이 십일조를 더 부유한 제사장들에게만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제사장들이 직위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여기 스테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만,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은 기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1장과 8절에서 이방인 선교를 명하셨지만,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과 2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사야 2장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성공하여 예루살렘이 개종했다면, 글썄요, 끝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 회개하면 끝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에 충실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서부터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몇 가지 선교 사업을 나갔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의 소수 이종문화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헬레니즘 신자들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성지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보다 이러한 다른 문화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처음에는 념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문화적 경계를 념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들 중 두 가지 예, 즉 6장과 5절에 언급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에게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사람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음, 여기서 스테반은 기소될 예정이다. 그는 헬레니즘 회당 중 한 곳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자신의 헬레니즘 회당일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아마도 이 리버틴 회당에 속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대제사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산헤드린 성원들 앞으로 끌려가게 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전의 사도들과 그들 이전의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지만 스테반의 운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9회기, 사도행전 5장부터 6장, 7절입니다.